

2016.05.12

최근 내주변에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일에대한 이상한 느낌으로 인하여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웠다.

프로젝트 리더격인 상무, PM으로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가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질러서 내게 PM자릴 대신하게한 같은회사 부장친구. 그리고 발주사인 서울시 담당자 세사람 사이에 이상한 회의가 몇차례 있었던것 같고 어제 1차 워크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하던 상무에게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해들었다.

결국 잘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던 느낌으로 억지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PM 자리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려는 기운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실은 내 입장으로만 생각해서 밀려나는 그리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이지, 원래는 정상을 찾아가는것인데

반신반의하면서 받아들였던 자리였는데 역시 무리였나보다.

기록관리를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부장친구와 나의 이분야 지식에 대한 깊이는 아예 비교대상이 아니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1달여를 그냥 자리에 앉아 남들 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파워풀하게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한 시간들이 못내 아쉬웠다.

어쨌든 다음주 정도가 되면 나는 원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대신 다른사람이 나의 빈자리를 메우게 될테지.

여긴 내자리가 아니었어.

지하라 공기도 않좋았어.

사람들 시위도 많아서 자유롭지 못했어.

스스로 여길 떠나야 하는 당위성을 찾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난 위로 하고 있었다.

난 또한번 다른 선택을 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어느순간 여기서 이일에 잠시 집중했듯이 그일에 집중하고 있겠지?

오랜만에 지하 프로젝트룸에서 빠져나와 뒤를 따라 나서는 이번에 만난 맘좋은 팀원 한명과

광화문근처까지 산책을 했다.

우리가 지하에서 우울함을 애써 감추며 일하고 있을때

바깥세상은 오늘처럼 너무 평화롭고 따듯했던가?

약 30분여 걷고 나니 몸에 살짝 땀이 스며들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언젠가 오늘의 일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때의 고충을 추억으로 하고

나는 그 때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테지?

오늘은 정시퇴근이다. 가자..